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1. 다음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님께
> 참된 철학자들이 권좌에 오르기 전이나, 각 나라의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기 전에는 인류에게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려 분별과 더불어 정의로써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나 나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는 좋음의 이데아를 배운 사려 깊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후략)…

① 모든 욕망과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적 판단 능력을 함양한다.
② 참된 실재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와 정의를 사랑한다.
③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
④ 감각적 경험을 통해 좋음의 이데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⑤ 개개인이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깨닫고 지식과 덕을 쌓는다.

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기질(氣質)의 성(性)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天命)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義)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선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 보 기 >

ㄱ. 욕구[欲]는 생존과 도덕적 삶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ㄴ. 도덕적 덕은 선을 선택하고 실천해야만 갖출 수 있다.
ㄷ. 타고난 기질에 따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된다.
ㄹ. 천명으로 주어진 인(仁)은 측은의 감정으로 표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밑줄 친 '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색(色)이 곧 공(空)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受想行識) 또한 이와 같다. 공 안에서는 무명(無明)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므로 <u>그</u>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마음의 장애를 없앤다. 장애가 없으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몽상에서 벗어나 완벽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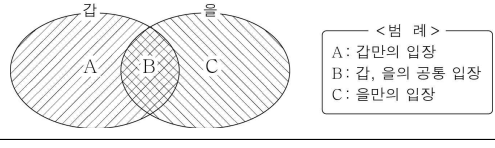
① 생사(生死)와 열반은 엄격히 구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가?
② 열반에 이르려면 반드시 무아(無我)를 자각해야 하는가?
③ 세속에서 바라밀(波羅蜜)을 실천하면 해탈할 수 있는가?
④ 인간은 누구나 오온(五蘊)의 일시적인 결합체일 뿐인가?
⑤ 상(相)에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것이 참다운 보시인가?

4. 사회사상 (가)~(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개인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지만 이를 통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회의 이익이 증진된다. 자신의 자본을 어떤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것인가는 개인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 (나) 부르주아적인 사적 소유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점유 형태 중에서 최종적이고도 가장 완전한 형태이다. 우리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철폐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 (다) 국가는 계획 경제의 틀 속에서 사적 소유자들이 생산과 복지의 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전제하지는 않는다.

① (가), (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가), (다)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를 혼합해야 한다고 본다.
③ (나), (다)는 필요에 따르는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④ (가)는 (다)와 달리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⑤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 주자가 '이(理)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도 없다.'고 말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생성 작용을 말한 것이다. 을 : 주자가 '이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발한다.'고 말한 것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지, 결코 '사단은 이가 먼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먼저 발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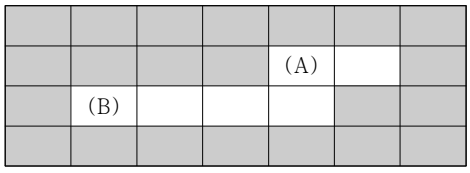
① A : 사단은 이 자체이지만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② A :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지만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
③ B : 이와 기는 번갈아 발현하고 또한 서로 따르는 것이다.
④ C :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타서 드러난 정이다.
⑤ C :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발하게 되는 까닭이다.

6.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하고 명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 을 :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 병 : 원초적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 인간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거의 정의로운 경우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를 자연적 의무를 갖는다.

① 갑은 국가가 공익 증진보다 사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국가의 모든 정책들을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③ 병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가 국민의 복지 실현이라고 본다.
④ 을, 병은 국가에 대해 구성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⑤ 병은 갑과 달리 국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본다.

7.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 우리의 인격성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 을 : 우리는 어떤 인격이 우리의 특정한 이익과 상관없이 칭찬이나 비난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때만 그 인격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	 [가로 열쇠] (A) : 눈, 코, 귀, 혀, 살갗 등을 통하여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 (B) :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통괄한다는 성리학의 명제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갑 : 보편화 가능성을 지닌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이다.
② 갑 :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생겨나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③ 을 : 행위에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는 도덕적 신념의 원천이다.
④ 을 :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지적 판단 능력이다.
⑤ 갑, 을 : 도덕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경향성이다.

[8～9] 갑, 을,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성(性)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에 배울 수도 일삼을 수도 없지만, 예의는 성인이 만든 것이기에 배워서 능할 수 있고 일삼아서 이루어낼 수 있다. 성왕의 다스림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있어야 선(善)에 합치될 수 있다.
> 을 : 하늘이 인(仁)이라는 벼슬을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 수 있고 성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覇]이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왕도[王]이다.
> 병 : 하늘이 나에게 덕(德)을 주셨다. 군자는 천명(天命), 대인(大人), 성인(聖人)의 말을 두려워한다. 소인은 천명을 모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인을 업신여기고 성인의 말을 무시한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

8. 갑, 을, 병 모두가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은? [3점]

	질문	갑	을	병
①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은 혁명을 통해 물러나게 해야 하는가?	예	예	예
②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는가?	예	예	아니요
③	예로써 다스리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④	통치자는 자기 수양을 하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는가?	아니요	예	예
⑤	백성들에게 인이 생겨나도록 예로써 교화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9.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기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도덕 인지 능력[良知]이 덕행의 기초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마음을 기르려면 욕심을 적게 가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타고난 성정(性情)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인성에는 도덕적 선의 단서가 내재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다.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의 K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인간은 늘 불안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결정을 회피할 경우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종교적 실존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
> <문제 상황>
>
> K는 최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K는 삶의 지표로 삼았던 아버지와의 갑작스런 이별을 겪으면서 깊은 슬픔과 불안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① 슬픔을 잊을 수 있도록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라.
② 모든 생각과 행동을 신에게 내맡기겠다는 결단을 하라.
③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아라.
④ 인간사의 필연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고통을 견뎌라.
⑤ 신과 삶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

11.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 :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권력으로 다른 가치를 얻고자 하면 그것은 권력을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각 분배 영역의 고유한 분배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 을 : 어느 누구도 사막에 있는 유일한 우물을 사유화하여 그가 원하는 물값을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어떤 것에 노동을 가하여 가치 있게 만든 것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

① 갑 : 어떤 사회적 가치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면 안 된다.
② 갑 : 정의의 각 영역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을 : 과거의 불의로 형성된 소유 상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④ 을 :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얻게 된 소유 권리는 정당하다.
⑤ 갑, 을 : 사회적 약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국가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서로 신약(信約)을 맺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한 사람 혹은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생성된 인격체이다. 이 인격체가 바로 주권자이며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臣民)이 된다.

< 보 기 >

ㄱ. 자연 상태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된다.
ㄴ. 신민에게는 주권자의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ㄷ. 국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 간의 합의로 형성된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생존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가상 대화의 '스승'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자 :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스승 : 그건 바로 우리의 지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네. 다시 말해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그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지.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존재한다네.
> 제자 : 최고의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 스승 :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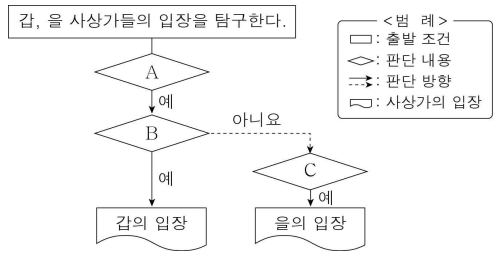
①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삶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네.
② 이성을 완전히 발휘하여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네.
③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인격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네.
④ 자연의 수학적 질서를 인식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네.
⑤ 사회적 쾌락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이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 사물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앎을 추구하고자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사물과 접촉하지 않고 어디에 근거하여 앎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격물(格物)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구하는 것이다.
> 을 : 사물에서 이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내 마음의 천리(天理)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나)



① A : 개개 사물의 이치와 마음의 천리는 근원이 다른가?
② A : 도덕성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격물을 해야 하는가?
③ B : 마음[心]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
④ B :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하는가?
⑤ C : 지행(知行)에는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있는가?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개인은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개성을 발전시키면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 (나) 개인은 가족·마을·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공동체와 무관한 개인은 선을 실천할 수 없고 정체성도 형성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개인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며,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강조한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념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윤리적 행위의 원천은 자연적 배려의 감정이다. 진정한 도덕 감정은 배려 관계를 다른 관계들보다 좋고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서 나온다.

입장 \ 학생	갑	을	병	정	무
배려 윤리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의 관계에 주목한다.	√	√		√	
배려의 자질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		√
윤리적 배려의 경우 자연적 배려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노력이 요구된다.		√		√	√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자연적 배려에서 욕구와 당위는 구별되지 않는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신은 모든 것이 나아가야 할 목적을 정하는 최초의 존재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를 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
> 을: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 보 기 >

ㄱ. 갑: 자연법을 통해서도 신이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ㄴ. 을: 신은 선악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다.
ㄷ. 갑, 을: 최고의 덕인 사랑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
ㄹ. 갑, 을: 신이 준 자질을 발휘하면 현세에서 구원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중시한 수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도(道)는 덕이 숭상하는 것이다. 생명은 덕이 내뿜는 빛이다. 본성[性]은 생명의 바탕[質]이다. 본성의 움직임을 행위[爲]라고 한다. 행위가 인위적이면[僞] 본성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 자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덕이라고 하고, 본성을 잃는 일 없이 행동하는 것을 다스림[治]이라고 한다.

① 일체의 분별적 관념들을 잊고[坐忘] 마음을 깨끗이 비운다.
②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兼愛]을 실천한다.
③ 하늘의 도를 내면화하고 만물의 화육(化育)을 도모한다.
④ 본성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예법을 배우고 익힌다.
⑤ 도를 기준으로 삼아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19.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성적이고 고상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이성적이고 고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다.
(나)	

< 보 기 >

ㄱ. 정념을 극복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하네.
ㄴ. 공적인 삶을 멀리하고 마음의 평정을 추구해야 하네.
ㄷ.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사려 깊게 행위 해야 하네.
ㄹ.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면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관리들에게 명하여 저잣거리에 있는 양물(洋物)을 거두어 이를 거리에서 불태우게 하고, 이후로 교역하고자 오는 자에 대해 외구(外寇)와 통교했다는 죄로 다스리면 민심도 자연히 안정될 것이다.
> 을: 경천(敬天)함으로써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세상을 위해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긴다. 한울님이 사람을 떠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버리고 한울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갈증을 풀려는 것과 같다.

< 보 기 >

ㄱ. 우리의 전통 사상이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인가?
ㄴ. 서양의 종교뿐 아니라 문물 또한 배척의 대상인가?
ㄷ. 천주교의 확산은 유교적 윤리 의식을 붕괴시키는가?
ㄹ. 남녀와 노소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야 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